

관계성 향상을 위한 기독교 청년교육 방안 연구

박은혜(성결대학교 / 부교수)

pehgrace@sungkyul.ac.kr

한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시기의 주요 발달과제인 관계성 형성 및 향상을 위해 청년기와 관계성에 대해 발달심리학적, 대학교육, 신앙 및 영성적 측면에서 정리하고, 기독교 청년교육 방안을 교육의 요소별로 제시하고자 함이다. 관계성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관심을 주고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며,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기술 또는 기교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 지속적인 배움과 훈련이 필요하다. 청년기의 여러 발달과제들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관계성은 청년 초기 대학생활의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인성, 진로결정 등의 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인간의 실존과 신앙은 관계를 통해 규정되고 형성되기 때문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삶의 의미와 내면적인 성장을 위한 영성 발달도 공동체와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학습자 및 교육환경 측면에서 관계에 대한 욕구를 가진 학습자 이해, 관계성 욕구 충족에 있어서 방해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 이해, 그리고 청년들의 관계성이 일어나는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교사 측면에서는 촉진자, 안내자, 관리자, 멘토 등의 역할로의 변화를 제안하였다. 교육목적 및 내용 측면에서는 관계를 위한 가르침이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육내용을 세 가지 관계의 유형과 각 유형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교육방법 측면에서는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위한 소통과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학습자 중심의 집단학습 방법을 관계의 내용과 인지적, 정서적, 행위적 차원에 따라,

다른 교육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육의 결과 및 평가 측면에서는 교육계획 단계 시 고려했던 것들이 실제 교육에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확인, 다양한 평가 방법과 다각적인 측면의 평가, 평가 결과의 구체적 적용을 위한 정리를 제안하였다.

《 주제어 》

관계성, 청년, 발달과제, 기독교 청년교육, 신앙

I. 들어가는 말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삶의 모든 시기는 한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데 각 시기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다. 청년기는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의존적인 삶의 형태로부터 독립적인 성년으로서 사회로 진출하여 그 울타리를 확장해 나가는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진입하는 시기이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였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반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어 인간관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면대면 만남이 제한되다 보니 기존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학교 현장에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교사와 학습자 간, 학습자 간의 제한된 상호작용과 소통으로 인해 관계성 형성은 부족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높이게 되어 학업성취와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한호, 2022, 49).

청년 시기에는 사회적 환경이 확장됨에 따라 친구, 이성, 가족 등 기존의 관계에 대한 재정립, 새로운 다양한 관계 형성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스스로 관계 형성을 회피하고 고립을 추구하기

도 한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보다 물질적 가치를 우선으로 한 성공을 우선시하는 사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진윤희, 2020, 104).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은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는 과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시대에서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사포시대에 이르렀다. 청년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 중, 대인관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하였다(김연수·유상희, 2012).

청년기는 이전의 시기보다 여러 측면에서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 그중 하나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장 및 발달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며, 살아가면서 점점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인간관계 형성 및 발달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과제이지만 특히 청년기의 인간관계는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팀에서 1938년부터 2013년까지 75년 동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뽑아 그들의 삶을 추적하며 관찰한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를 수행했다(Vaillant, 2013). 연구의 목적은 연구 대상자들의 삶에서 건강과 성공을 이끌어 내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함이었다. 인간 삶에서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행복한 삶의 비결은 인간관계였다. 가족과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 공동체와의 관계가 긴밀하고 친밀하게 좋은 관계를 맺어온 사람일수록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성인으로서 독립하기 위해서는 취업과 결혼 등의 성취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의 성취가 늦어지고 있어 법적 성인됨과 진정한 성인됨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아넷(Arnett, 2000; 2004)은 성인됨의 인식에 대한 실증 연구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심리적인 특성을 성인됨의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청소년기도 아

니고 심리적인 특성까지 지닌 성인기도 아닌 시기를 ‘신생 성인기’(Emerging adulthood)라는 시기로 명명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직은 완숙하지 않은 신생 성인’이란 의미에서 ‘young adulthood’라고도 표현한다(장휘숙, 2000, 17). 본 연구는 청소년기를 지나 아직 사회적 과업이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시기는 인간관계가 전보다 활발하기도 하고, 인간관계 갈등도 많이 겪는 시기(권석만, 2006)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년기와 관계성에 대해 발달심리학, 대학교육, 신앙과 영성적 측면에서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독교 청년교육 방안을 교육의 요소별로 제안하고자 한다.

II. 청년기와 관계성

1. 관계성에 대한 이해

관계성이란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으며, 관심을 주고받는다는 느낌으로 소속의 욕구와 유사하며, 인간관계에 있어서 유대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형성하려는 경향성이다(Baumeister & Leary, 1995). 개인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낌으로 개인이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타인도 자신을 배려하고 관심을 가진다고 느끼는 것이며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충족되는 욕구이다(Ryan & Deci, 2000).

관계성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심리적 욕구인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능감과 자율성과 함께 만족되면 내재적 동기를 증진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자기결정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조절이나 통제를 할 수 있느냐’인데 이는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동기란

‘행동의 방향을 결정지으며 행동을 계속하게 하는 작용’이다(Atkinson, 1964, 274).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방향을 갖게 하며 지속적으로 그 행동을 실행하도록 강화하는 것이다(박은혜, 2016, 7). 내재적 동기가 높다는 것은 외부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스스로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재적 동기는 인간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자신이 어떤 행동에 대한 조절자임을 인식하는 자율성,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신감과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유능성,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성이 필요하다(김아영, 2010).

관계성은 단기간 내에 형성되고 발달되는 어떤 기술 또는 기교가 아니다. 관계성은 삶의 태도 혹은 가치와 관련되는 것이다. 타인과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외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행위이다. 초기 양육자와의 안정적 애착 관계 형성, 친밀한 관계와 동료 및 사회와의 유대감, 부정적인 정서인 우울감과 외로움, 소속감 등과 관련있는 개념이다(이수진, 2011, 906-907). 따라서 어릴 때부터 연결되어 온 여러 관계에서 형성되어 내면화되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지속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훈련이나 학습이 필요하다고 본다(이미식·이연수, 2015, 398).

2. 발달심리학과 청년기의 관계성

청년기는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전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는다. 학업, 진로, 다양한 인간관계 등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청년기에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을 잘 수행하는 것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하다. 청년기에 수행할 발달과업은 학자들과 다양한 문화에 따라 다르다. 레빈슨(Levinson, 1978)은 청년기를 성인 초기

전환기라 칭하고, 성인기를 위한 삶의 기본적인 뼈대인 인생구조 설계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며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며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꿈을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구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멘토 또는 후원자와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한다.

청년기의 여러 발달과업들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정옥분(2015)은 학자들이 말한 청년들의 다양한 발달과업들을 살펴보고, 공통적인 과업을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 수행, 자기 성에 적합한 성역할 습득, 부모나 성인들로부터 정서적 및 경제적 독립, 지적 능력 개발, 직업 선택과 준비, 자아정체감 확립,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준비'라고 정리하였다(25). 청년기에 수행해야 할 과업은 가족, 이성, 배우자, 여러 사회적 관계 등과의 관계성이 포함되어 있다. 에릭슨(Erikson, 1968)은 청소년 이후, 성인 초기에 해결해야 할 심리사회적 위기는 친밀성 대 고립이라고 한다. 친밀성의 과제를 잘 성취하면 이성과의 성적 친밀감, 진정한 우정, 안정된 사랑, 결혼의 지속 등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부정적인 결과로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형성에 실패하여 고립과 고독으로 나타난다(신명희 외, 2013, 375). 이러한 친밀감은 전 단계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을 확립해야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청년기의 관계성 발달은 자아의 발달과 관계있다. 올포트(Allport)는 청년기에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자기에 대한 새로운 탐색기'라고 하였다(김애순·윤진, 1997, 31에서 재인용).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에 성취해야 할 과제이지만 청년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자아정체감이 약한 청년들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자아발달 과정을 연구한 로버트 키건(Robert Kegan, 1982)은 관계성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타인과 친밀하고 소속하고 싶은 관계지향적인 욕구와 자기 자신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아를 형성 및 발달시켜 나간다고 본다. 이 과정을 자아의 진화

(evolution)라고 하며, 건강한 자아발달은 개인의 독특한 특성인 차별성(differentiation)과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관계성(relationality)을 모두 발달시켜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소년 시기까지는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지 못하고 자아일관성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인 자아를 대인 관계적 자아(interpersonal self)라고 한다. 이는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자신에 대해 이해하며 의미를 형성한다. 청소년기 이후 주도성이 발달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것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아를 제도적 자아(institutional self)라고 한다. 청년기에는 자신에 대해 주체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타자와 구별되는 독특한 자신만의 특성을 인식함으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아를 형성한다. 다양한 관계들과 역할을 하면서 발달하는 자아가 안정된 체계를 구성하고 유지하게 된다. 더 나아가 가장 성숙한 자아발달 상태는 상호개체적 자아(interindividual self)라고 하는데, 이는 상호의존성과 상호관계성 안에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과 타인의 개별적이고 특수적인 것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타인과의 상호적인 관계성을 유지하는 자아발달의 단계이다(Kegan, 1982, 95-110). 청년기의 관계성 형성 및 발달은 개인의 자아 성장과 타인과의 관계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3. 대학교육과 청년기의 관계성

본 연구의 대상인 청년은 주로 대학생의 시기에 해당한다. 대학생활은 이전 보다 많은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며, 갈등도 많이 경험하며, 독립적인 성인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대학생의 적응상태를 살펴보기 위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6명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부담

을 지각하고 있었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정성진·조현주, 2013; 정은이, 2011). 대인관계의 갈등과 어려움은 정서적 불편함과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영향을 끼쳐 대학생활의 부적응을 야기하기도 한다.

출산인구의 급감으로 대학 진학 대상자가 감소하게 됨(조선일보, 2020.9.22)으로 지방대학은 정원 미달 상태가 발생하였다(조선일보 2021.3.15). 대학의 위기를 막고자 2015년부터 3년 단위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정원 축소와 재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이 평가지표 중 하나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은 이 지표를 관리하고 있다(황선주, 2019). 이와 관련하여 재학생의 타 대학 편입이나 자퇴 등 이탈 방지를 위한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관계들과의 상호작용과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관계들은 대학과 학생과의 관계,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 또래 학생과의 관계, 선후배와의 관계 등이다. 대학생의 관계성과 관련한 다양한 변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관계성은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인성, 진로결정 등의 영역에 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살펴보고, 관계성 향상 및 관리를 위해 대학에 제시한 방안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관계성은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 교수와 학생 및 교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성이 대학생활 만족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김하나 외, 2020; 송홍준, 2016). 대학조직의 커뮤니케이션과 대학과 학생 관계성은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대학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연구하였다(박노일·정지연·진범섭, 2017).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과 교수진은 학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작용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대학-학생 관계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대학 만족도를 향상시키게 된다고 하였다(147). 정한호(2022)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은 비대면 수업이 보

편화되어 교수와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게 되어 단절과 고립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비대면 수업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안전한 교류 또는 연합을 하고 함께 있다는 심리적 감정을 의미하는 지각된 관계성은 수업 현장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간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과제전략, 자기평가, 학습환경구조화, 시간관리를 온라인자기조절학습의 하위변인으로 설정하고, 지각된 관계성, 인지된 학업성취,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인지된 학업성취가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지각된 관계성은 과제전략, 자기평가, 학습환경 구조화 등 관련 변인을 매개로 하여 만족도와 인지된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성과 관련된 제안으로 비대면 수업에서도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간의 상호소통을 통한 관계성 증진을 위한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학습자와의 소통과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능을 개발할 필요도 제안하였다(66-68).

둘째, 관계성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끼친다. 대학생활 중, 가족, 친구, 교수와의 사회적 관계형성과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는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송진열, 2017; 유용식, 2019; 이서정, 2018). 기숙사 거주 대학 신입생들의 인식과 경험을 대인관계성을 중심으로 탐색한 임유하와 이영선(2019)의 연구 결과, 신입생들은 인적 관계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교내 모임에 참여하며 공동체에 소속되는 경험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대학은 타인과 연결되어 소속감을 느끼며 대인관계의 발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인간, 집단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이 지원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기본심리 욕구와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서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모두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박연숙, 2015). 이수진(2011)의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유능감보다 자율성과 관계성의 욕구가 만족될수록 정서적 적응과 주관적 안녕

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920). 타인과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감도 증가하였다.

셋째, 관계성은 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여 타인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여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고,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권석만, 2008). 이재겸과 김중경(2022)은 간호대학생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참여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인성과 관계성, 교내활동 참여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시기에 간호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인성이 매우 중요하나 이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회가 대 학생에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관계성, 교내 참여, 학년, 학과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88).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학생간, 학생과 교수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성 형성을 위한 활동이 부족하게 되어 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인성을 겸비한 간호 의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관계성을 함양시키키기 위해 교내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고 교수와 학우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89).

넷째, 관계성은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청년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제는 부모나 다른 성인들로부터 정신적 및 경제적 독립이다. 이를 위해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청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격, 적성, 능력, 가치관 등 개인적인 문제와 다양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진로 결정을 미루거나 결정하지 못하기도 한다. 진로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불안 내외통제 소재 및 자아 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순종성, 수동성, 높은 인정 욕구, 자기비판, 흥미, 동기 등의 성격적 경향성과 성차 등 개인의 심리적 변인들과 관계가 있었

다(김은영, 2007, 1080에서 재인용). 개인의 성격, 인지, 태도 등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김은영(2007)은 자기결정성 이론의 세 가지 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근거하여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 세 가지 욕구가 충족되면 자기결정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진로결정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유능감과 자율성이 진로결정과의 관계에서, 유능감과 관계성이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행동이나 직업적 선택 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관계성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 관련 변인이 진로미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다른 욕구를 매개로 하여 간접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결정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진로미결정에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관계성이란 진로결정 활동을 할 때 관계적 지지와 조언을 받고 타인과의 유대관계를 느끼는 것이다. 진로결정관계성의 하위요인으로는 지지, 모델링, 활동, 조언 등이다(1082).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지지나 조언으로 자기효능감을 가지게 되어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 지도 시, 관계성에 기초하여 진로 결정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1094 -1095).

정미경(2019)은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학년에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연구하였다. 관계성과 관련된 연구 결과,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장벽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진로결정관계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진로준비행동에 진로결정관계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 지도 시, 관

계성 향상을 통해서 진로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해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4. 신앙 및 영성과 청년기의 관계성

관계성은 신앙의 형성 및 성장과 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앙의 본질적인 특징은 관계성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실존적인 관계는 하나님, 인간, 다른 피조물인 자연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이러한 관계성들을 균형있게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석호, 2012). 이명곤(2019)은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관계성의 단절과 불신이라고 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종교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관계성으로서의 믿음과 종교적 삶의 본질, 즉 신앙으로서 믿음을 조명하고자 하였다(287). 키에르케고르는 모든 인간은 실존적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인간은 '무한한 것과 영원한 것과의 관계성을 정립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아직 되지 못하여 불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자기와 타자, 자기와 자기, 자기와 절대자와의 세 가지 유형의 관계성을 가진다고 한다. 자기와 타자와의 관계는 외적으로 규정된 것이 진정한 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외부적인 규정과 무관하지는 않다. 자신의 내적인 관계를 통한 규정일 수도 있으나 외적인 관계들에 영향을 받는다. 자기와의 관계는 내가 타자가 되어 나 자신을 고려하는'자기 객관화'와 유사하며, 절대자와의 관계는 자유와 내면성의 양태를 띤다고 한다. 결국, 인간 존재는 자기, 타자, 절대자와의 관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러한 관계를 잘 형성할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자신이 되어가는 자아 정립은 관계성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지 끊임없이 자기, 타자, 절대자와의 관계들을 맺으면서 그 관계들이 자신에게 내면화되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믿음의 성

장으로 인해 관계성은 내면화되고, 자아가 내면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진정한 자기가 되어 간다는 것이다. 관계를 통하여 믿음이 형성되고, 믿음은 관계들로부터 진정한 자아의 발달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이명근, 2019, 293-302에서 재인용).

제임스 파울러(James Fowler)는 신앙은 인간의 보편적 관심사로 이해하며, 자아, 타자, 세계, 궁극적 존재의 관계성에 대한 해석 양식과 의미형성을 하면서 신앙은 발달한다고 보았다(Fowler, 1987, 55-77).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관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치와 능력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신앙으로 더 활성화되고 형성해 간다. 리처드 오스머(Richard Osmer, 1995)는 신앙의 대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하며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야 신앙이 형성되고 발달한다고 한다. 사라 리틀(Sara Little, 1983)은 신앙공동체에 참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은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엘리자베스 무어(Elizabeth Moore, 1998)는 이야기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변혁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며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관계형성은 자아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백은미, 2013, 7). 하버머스와 이슬러(Ronald Habermas & Klaus Issler, 1996)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개념을 하나님, 자신, 이웃, 그리고 세상의 네 가지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창세기 3장 이후, 타락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가지 관계를 회복할 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60-68).

신앙은 영성과의 관계가 있다. 영성의 개념은 학문 분야별, 종교별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기독교교육에서 영성은 통전적 혹은 전체성으로 이해한다(이은실, 2015, 209에서 재인용). “영성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성의 총칭이며 삶 전체를 통해 전개되는 것”(이은실, 2015, 8)으로 정의한다. 인지적, 정서적, 행위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 전인적인 차원의

인간 삶에서 이뤄지며 영성교육은 인간의 변화와 발달과 관련이 있다.

이은실(2015)은 대학 생활 중 인지적인 측면이나 가치관과 태도 등의 성취나 발달이 중요하여 관련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 왔지만 종교나 신앙, 영성에 관련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고 보았다. 대학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의 내적 성장인데 많은 대학들이 필수적인 목적을 잃었다고 아쉬워한 영성교육가인 파커 팔머(Parker Palmer)의 주장을 인용하며 기독교대학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영성의 성장이라고 하였다(203-205). 대학생 시기에 여러 발달과제 중,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가치를 명료화하기 위해서 영성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광률(2012)도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 청년들에게 영성과 관련된 발달과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205). 체계화된 종교생활을 위한 교리보다 신앙과 삶의 조화를 위해 영성 형성 과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영성발달과 관련된 요인으로 자신에 대한 의식, 타인과의 관계와 공동체 의식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박선영·권석만, 2012), 학교문화, 교육과정, 수업 외 교육과정, 공동체 등이 영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raskamp, 2007). 학생들이 대학에 다니면서 맺는 다양한 공동체와 타인과의 관계가 영성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구성원, 교수, 학생 등이 영성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학생들의 영성발달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한다(이은실, 2015, 28).

관계성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어릴 때부터 여러 관계들을 맺으면서 형성되어 온 것이 내면화되어 이후 성장하는 동안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관계성은 독립적인 성인기로 준비하는 대학생활의 다양한 영역: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인성, 진로결정 등의 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므로 청년 시기의 주요 발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성 형성 및 향상의 발달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 교육, 학습이

필요하다.

III. 관계성 향상을 위한 기독교 청년교육 방안

출산율 감소로 인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은 침체를 거쳐 쇠퇴, 이제는 위기를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 사회가 기독교를 바라보는 반기독교적 인식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정관, 2020, 2). 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 성장 및 발달을 포함한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 관계성 형성 및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관계성 형성을 위한 방안을 발달심리학적, 대학교육, 신앙과 영성적 측면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탐색하여 기독교 청년교육 사역 현장에 적용 방안을 교육의 요소별로 제안하고자 한다.

1) 학습자 및 교육환경 측면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신생 성인기에 해당하는 청년은 다양해지고 확대된 관계들과의 관계성의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으로 발달하기 위해 청년 시기에 성취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이며, 신앙 및 영성적 측면에서도 관계성의 욕구는 인간이 실존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관계성의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어 청년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관계성이 필요한 인간 실존에 대한 이해와 발달적인 특징 등 학습자 이해는 기독교 청년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둘째, 관계성 욕구 충족에 방해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청년 시기의 특징인 자기중심주의, 개인주의, 성공주의 등은 관계성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방해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살아가

고 있는 세대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시대별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교수자가 인식하는 청년 학습자와 실제 청년 학습자와는 차이가 있다. 청년 세대에게 영향을 주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이해는 관계성 향상의 방해요인을 파악하게 되고, 학습자의 학습 동기, 흥미, 태도 등 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기독교 청년들의 관계성 욕구는 가정, 공동체, 교회, 대학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나타난다. 교육 현장에 따라 청년들이 맺는 관계의 특징과 방법을 살펴보고, 유기적인 연결성을 이해하고, 관계성 향상을 위한 각 교육 현장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는지 파악하고 협력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교사측면

기독교 청년들을 교육하는 교사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교사 역할과는 달라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 학습자와는 다른 성인 학습자로서 학습의 스타일이나 동기 등을 이해하고, 교사의 역할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자기주도성이 강해지고 있는 청년들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사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학습자들이 배워야 할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어 스스로 필요한 것을 주도적으로 찾아 배우도록 해주어야 한다. 학습과정을 촉진하며 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청년 학습자의 자율성을 인정하게 되면 교육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한계를 제공하여 경계선 안에서 학습을 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한다. 교사와 학습자 간의 관계는 함께 학습하고 성장해 가는 동반자적 관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적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청년 시기에 필요한 멘토가 되어주어 그들의 삶을 지원하고 지지하며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관계성 향상을 위해 수업에서의 변화된 교사의 역할과 더불어 수업 외에도 관계성 향상을 위한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도록 모델링이 되어주고, 지지와 조언 등을 통해 개별 학습자에게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며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3) 교육목적 및 내용 측면

관계성 향상을 위한 기독교 청년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청년들이 맺어야 할 여러 관계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김정훈, 21015, 389). 이는 인간발달 및 신앙 발달 측면에서도 공통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여러 관계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아발달과 함께 일어나야 한다. 키건이 말한 자아발달의 과정에서 대인 관계적 자아에서, 제도적 자아를 거쳐, 가장 성숙한 자아의 균형 상태는 상호개체적 자아(interindividual self)가 자아발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는 자아발달의 가장 성숙한 상태로 타인과의 상호의존 및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성 안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상태이다. 자신과 타인의 독특성을 존중하면서 타인과의 상호적인 관계성을 유지하는 상태이다. 자신의 발달 및 성숙을 위해 성찰하며 노력을 하며 타인과의 공동의 의미형성을 창조적으로 수행하는 상태이다(Kegan, 1982, 103-106).

학습자의 자아발달 정도를 파악하고 자아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성숙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숙한 관계성 향상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는 하나님,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이다. 이 세 가지 관계는 상호작용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각 관계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믿음, 즉 신앙이 주요 교육내용이어야 한다. 인간은 관계성을 통해 자아를 정립해가는 존재이다. 자아의 발달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관계성이 내면화되면서 믿음은 성장해 간다고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

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획득된 애착 경험이 내적으로 남아 성인기의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회복에도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personal)이고 대인 관계적(interpersonal)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신승변, 2015, 296).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데 영향을 끼치며, 자아의 발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긍정적 및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따라서 청년의 관계성 향상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내용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성경을 기초로 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지적 차원의 교육내용이 될 수 있다. 또한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으로 인해 청년기에 형성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탐색해보는 것은 정서적 차원에서 교육내용이 될 수 있다. 인지적 차원에서 학습한 하나님, 정서적 차원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과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동적인 차원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배라 할 수 있다. 인지적 및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형성은 실제 삶에서 예배함으로 표현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예배를 통해 형성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도록 교육해야 한다.

자신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교육내용은 자기객관화, 자기수용, 자아발달이다.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파악하게 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수용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발달을 이루게 하는 것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전인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특함을 파악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도 긍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건강하게 자아를 발달시킬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정체를 찾아가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타인 의존적이며 수동적이었던 신앙에 대해 주체적이고 비판적 성찰을 하여 타인과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신앙의 정체성

을 가져야 한다(Fowler, 1981, 174-183). 자신을 이해하고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내용과 자신의 신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교육내용으로 자아 발달을 도와야 한다.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포함되어야 할 교육내용은 희생과 봉사(김석호, 2012),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와 같은 인지적 공감 능력,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과 같은 정서적 공감 능력(이다경·김동원, 2018), 관계적 신뢰, 상호통제성, 헌신성, 만족성(정지연·박노일, 2021), 친밀성, 공감성, 친화성(유용식, 2019),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이미식·이연수, 2015) 등의 요인으로 설명한다. 이들 요인들 중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교육내용을 인지적, 정서적, 행위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균형있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인지적 차원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 개방성, 의사소통을, 정서적 차원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 타인의 상황에 대해 민감성 및 공감성을, 행동적 차원에서 타인과 친밀함 형성, 상호통제성, 헌신성 등의 교육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청년들은 자신만의 신앙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자신만의 개별적 반성적 신앙에서 타인과 세계와의 관계성을 인식하고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신이 추구하는 신앙의 한계성을 깨닫고 받아들일 기도 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Fowler, 1981, 184-198). 자아의 발달과 더불어 다른 존재들에 대한 이해와 관계 맺음으로 인해 자신에게 있는 모순을 파악하고 새로운 균형과 창조적 재형성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지지하고 격려하는 신앙공동체와의 관계성이 교육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백은미, 2013, 306).

4) 교육방법 측면

하나님,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성 향상의 교육목적 성취를 위해 인지적, 정서적, 행위적 차원에서 교육내용이 선정된다. 교육목적 성취를 위해

교육내용, 학습자 수준, 교육시설 및 기기 등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방법이 선정되어야 한다. 관계성 향상을 위한 교육방법 선정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각 관계와의 긍정적 관계형성, 즉 친밀하고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상호 간,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관계성은 여러 관계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발달되기 때문이다.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이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학습자는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은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적극적인 학습자의 참여와 효과적인 소통으로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일으키는 학습자 중심의 집단학습 방법이 관계성 향상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교육 방법론을 제시한 학자들 중, 참여와 소통을 통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관계형성을 위한 방법으로 오스머(1995)는 학습자들 간의 참여와 나눔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존재이며 사랑할만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역동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35-38).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그들과의 관계도 형성되게 하는 방법으로 토의법을 제안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75-111). 리틀(1983)은 신앙공동체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속에서 신념의 맥락을 인식하며 친교를 하게 된다. 친교를 통해 상호성이 촉진되고 신념을 신앙과 연결시키게 된다는 것이다(107-121). 무어(1998)은 관계적 교육으로 내러티브 방법(narrative method)을 제시한다. 서로의 삶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하며 삶의 의미와 자아정체성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다른 존재들과의 상호연결성을 가짐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러티브 방법은 자아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하나님, 타자,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성찰과 창조적인 재구성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235-236). 청년들의 삶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그 경

힘이 다른 사람에게 의미있게 적용되도록 하여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오스머, 리틀, 무어의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을 형성하고 발달시키는 방법으로 제안하였지만 결국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관계성이 형성되고 발달한다.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소통과 적극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학습자 중심의 집단학습의 실제적 방법으로는 토의법, 대화적 방법, 협동학습, 팀기반학습, 문제중심학습, 팀프로젝트 등이 있다. 교육의 목적, 내용, 학습자 수준, 교육 시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해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관계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편견을 가지고 자기주장만 고집하거나 비난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관계성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 교사와 학습자 모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존중하며, 경청하며, 감정이입을 하며 공감적으로 이해하며,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5) 교육의 결과 및 평가 측면

평가의 목적은 관계성의 성장 및 발달을 위해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의 교육 계획 및 실행 시, 적용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관계성 향상을 위한 학습자 분석,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자료 등에 관한 고려 및 준비를 교육계획 단계와 교육을 수행하고 난 후, 계획대로 실제 교육에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교육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도록 교육계획이 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교수자나 학습자 측면에서 여러 관계들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양적 및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관계성 향상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양적인

평가만으로는 제한적이다. 양적 및 질적 방법을 활용한 다양한 평가 방법과 교수자, 학습자,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측면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평가로 관계성 향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평가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평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교육을 위해 개선 및 보완 사항을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 방안을 정리하는 과정까지 완료하는 것을 제안한다.

IV. 나가는 말

미성년에서 성년으로의 전환기에 확대된 관계들로 인해 청년들은 관계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지만 갈등도 많은 시기이다. 관계성은 독립적이고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청년기에 달성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기독교 청년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 관계성 형성 및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청년 시기의 주요 발달과제인 관계성 형성 및 향상을 위해 청년기와 관계성에 대해 발달심리학적, 대학교육, 신앙 및 영성적 측면에서 정리하고, 기독교 청년교육 방안을 교육의 요소별로 제시하였다.

관계성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관심을 주고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며,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기술 또는 기교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 지속적인 배움과 훈련이 필요하다. 청년기의 여러 발달과제들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관계성은 청년 초기 대학생활의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인성, 진로결정 등의 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인간의 실존과 신앙은 관계를 통해 규정되고 형성되기 때문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삶의 의미와 내면적인 성장을 위한 영성발달도 공동체와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

게 작용한다.

학습자 및 교육환경 측면에서 관계에 대한 욕구를 가진 학습자 이해, 관계성 욕구 충족에 방해요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 이해, 그리고 청년들의 관계성이 일어나는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교사 측면에서는 촉진자, 안내자, 관리자, 멘토 등의 역할로의 변화를 제안하였다. 교육목적 및 내용 측면에서는 관계를 위한 가르침이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육내용을 하나님, 자신, 타인과의 관계와 각 관계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교육방법 측면에서는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위한 소통과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학습자 중심의 집단학습 방법을 관계의 내용과 인지적, 정서적, 행위적 차원에 따라, 다른 교육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육의 결과 및 평가 측면에서는 교육계획 단계 시 고려했던 것들이 실제 교육에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확인, 다양한 평가 방법과 다각적인 측면의 평가, 평가 결과의 구체적 적용을 위한 정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요한 발달과제인 청년기의 관계성 향상을 위해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고, 기독교 청년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관계성이 일어나는 다양한 교육 현장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 청년교육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관계성 향상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국가, 교회, 가정 등 어느 공동체에서나 청년 존재는 전 세대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의 건강한 발달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청년 시기의 관계성 향상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기독교 청년들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교육하여 전인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 및 발달을 돕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권석만 (2006).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 [Kwon, S. M. (2006). *Psychology of human relationships for young adults*. Seoul: Hakjisa.]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서울: 학지사.
- [Kwon, S. M. (2008). *Positive psychology*. Seoul: Hakjisa.]
- 곽수근 (2020.9.22). 을 수능 49만명, 대학 정원보다 6만명 적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0/09/22/E5ESVBO42FH4FHY_YHL6PGKS6SU/ 추출일: 2022.8.12.
- [Kwak, S. K. (2020.9.22). 490,000 SAT this year, 60,000 fewer than the university's quota. The Chosunilbo.]
- 곽수근·박세미 (2021.3.15). 무너지는 지방대...200명 이상 정원미달 18곳.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1/03/15/FYQDQPDXXKH4DJIVE_MPKR2OJS34/ 추출일: 2022.8.12.
- [Kwak, S. K., & Park, S. M. (2021.3.15). Collapsing local university, 18 places with 200 or more undercapacity. The Chosunilbo]
- 김광률 (2012). 청년여성교육을 위한 교회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30**, 199-224.
- [Kim, K. Y. (2012). Spiritual educational tasks for the young adult in the Korean protestantism.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0*, 199-224.]
- 김석호 (2012). 그리스도인의 삼중적 관계성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이에 따른 기독교 윤리 적 실천방안. **신앙과학문**, **17(2)**, 39-66.
- [Kim, S. H. (2012). Christian ethical practices in the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riune relationships between God, human being and nature. *Faith and Learning*, *17(2)*, 39-66.]
- 김아영 (2010). **학업동기: 이론 연구와 적용**. 서울: 학지사.

- [Kim, A. Y. (2010). *Academic Motivation: Theoretical Research and Application*. Seoul: Hakjisa.]
- 김애순·윤진 (1997).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Kim, A. S., & Yoon, J. (1997). *Youth conflict and self-understanding*. Seoul: Joongang Jeoksung Publishing.]
- 김연수·유상희 (2013). 대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과 생활스트레스와의 관계: 치기공과, 치위생과 대학생 중심으로. **대한치과기공학회지**, **35(4)**, 405-414.
- [Kim, Y. S., & Yoo, S. H.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mental health and life stress of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and dental hygien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Technology*, *35(4)*, 405-414.]
- 김은영 (2007). 남녀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상담 및심리치료**, **19(4)**, 1079-1100.
- [Kim, E. Y. (2007).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indecision in relation to their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4)*, 1079-1100.]
- 김정훈 (2015). 21세기 기독교교육을 위한 통전적 가르침. 서울: 한들출판사.
- [Kim, J. H. (2015). *Wholistic teaching for Christian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Seoul: Handl Publishing Company.]
- 김하나·김정은·조소현·박예지·이상준·마성룡·송보경 (2020). 대학생의 부모, 교우, 교수지원과 대학 생활 만족도 간의 융복합 분석. **한국융합학회**, **11(1)**, 89-96.
- [Kim H. N., Kim J. E., Jo, S. H., Park, Y. J., Lee, S. J., Ma, S. R., & Song, B. K. (2020). Combined study of relationship among parents, friend, professor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for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1)*, 89-96.]
- 박노일·정지연·진범섭, (2017). 대학 조직 커뮤니케이션과 대학-학생 관계성 및 대학 만족도. **홍보학연구**, **21(6)**, 131-151.

- [Park, N. I., Jeong, J. Y., Jin, B. S. (2017). University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university-student relationship, and university student satisfaction. *Journal of Public Relations*, 21(6), 131-151.]
- 박선영·권석만 (2012). 삶의 의미의 원천, 구조의 탐색 및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개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12(2), 199-224.
- [Park, S. Y., & Kwon, S. M. (2012). Search of the source and structure of meaning in life and the development of the multidimensional meaning in life scale: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2(2), 199-224.]
- 박연숙 (2015). **전문대학생의 기본 심리욕구와 자기 격려 및 대학 생활 적응 간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ark, Y. S. (2015). *The relationships among basic psychological needs, self-encouragement,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of junior college students*. Chungbuk University Master Dissertation.]
- 박은혜 (2016). 교회학교 교사의 헌신을 촉진하기 위한 내적 동기의 적용 방안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51, 1-28.
- [Park, E. H. (2016). A study of applic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to promote commitment of church school teachers.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51, 1-28.]
- 백은미 (2013). 과정신학의 관점에서 성인의 성숙한 관계성을 위한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33, 299-327.
- [Paik, E. M. (2013). Christian education for adult's mature relationships from the perspective of process theology.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3, 299-327.]
- 송진열 (2017).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2), 225-345.
- [Song, J. Y. (2017). Interpersonal relation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 Freshmen's Adapta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8(12), 225-345.]
- 송홍준 (2016). 대학교육 만족도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556-567.
- [Song, H. J. (2016). Study on developing inventory of students satisfaction universit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8), 556-567.]
- 신명희·서은희·송수지·김은경·원영실·노원경·김정민·강소연·임호영 (2013).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Shin, M. H., Seo, E. H., Song, S. J., Kim, E. K., Won, Y. S., Noh, W. K., Kim, J. M., Kang, S. Y., & Lim, H. K. (2013).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Hakjisa.]
- 신승범 (2015). 기독교대학생의 성인 애착과 하나님 애착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도 S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43, 293-318.
- [Shin, S. B.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ttachment to God among students in a Christian private university in S. Korea.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43, 293-318.]
- 유용식 (2019). 대학교 신입생의 개별성 및 관계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3(4), 272-281.
- [Yoo, Y. S. (2019). Individuality and relationship of university freshman on college life adaptation,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3(4), 272-281.]
- 이다경·김동원 (2018).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의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계슈탈트상담연구**, 8(1), 77-88.
- [Lee, D. Y., & Kim, D. W. (2018). The effect of the Gestalt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GRIP) on empathic abiliti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stalt Counseling*, 8(1), 77-88.]

이명곤 (2019). 키르케고르의 사상에서 믿음의 두 가지 위상-관계성으로서의 믿음과 신앙으로서의 믿음. **동서철학연구**, **92**, 286-308.

[Lee, M. G. (2019). The two phases of faith in Kierkegaard's thought faith as relationship and faith as religious belief. *Studies in Philosophy East-West*, *92*, 286-308.]

이미식·이연수 (2015). 대학생용 관계성 증진 프로그램(RPP)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초등교육**, **26(1)**, 397-412.

[Lee, M. S., & Lee, Y. So. (2015). 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the relationship promotion program(RPP) for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6(1)*, 397-412.]

이서정 (2018). 대학생의 자기분화,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교정상담학연구**, **3(2)**, 63-81.

[Lee, S. J. (2018). Self-differentiation, personal relations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 *Korean Journal of Correctional Counseling*, *3(2)*, 63-81.]

이수진 (2011). 지각된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과 대학생활에서의 학업성취, 정서적 적응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5(4)**, 903-926.

[Lee, S. J.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the autonomy, relatedness, competence, academic achievement, emotional-adjust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5(4)*, 903-926.]

이재점·김중경 (2022). 간호대학생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참여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5)**, 84-91.

[Lee, J. K., & Kim, J. K.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relatedness and 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i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5)*, 84-91.]

- 이은실 (2015). 영성발달: 대학 교육에서의 개념과 평가 방법 탐색. **기독교교육논총**, 42, 201-239.
- [Rhee, E. S. (2015). Concepts and assessments of spiritual growth in higher education,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2, 201-239.]
- 이정관 (2020). 21세기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기독교교육논총**, 64, 81-107
- [Lee, J. K. (202).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n churches in the 21st century.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4, 81-107.
- 임유하·이영선 (2019). 기숙사 거주 대학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경험 탐색: 관계성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8, 111-131.
- [Lim, Y. H., & Lee, Y. S (2019). Exploring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of first-year students living on campus: Focusing on their relationship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48, 111-131.]
- 장휘숙 (2000).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Jang, H. S. (2000). *Adolescent Psychology*. Seoul: Hakjisa.]
- 정미경 (2019).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9(1), 65-81.
- [Chung, M. K. (2019).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relatedness,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9(1), 65-81.]
- 정성진·조현주 (2013). 학생상담센터 내방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 265.
- [Jeong, S. J., & Cho, H. J. (2013).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of college students in student counseling center.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s Annual Conference*, 1, 265.]
- 정옥분 (2015).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Jeong, O. B. (2015). *An understanding of youth development*. Seoul: Hakjisa.]
- 정은이 (2011). 대학생을 위한 자기성장 및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 집단상담의 효과 분석. **교육방법연구**, 23(4), 687-712.
- [Jeong, E. I. (2011). Effects of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self-growth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Focus o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3(4), 687-712.]
- 정지연·박노일 (2021). 교수·학생 공중관계성과 대학이탈 가능성: 대학 PR 관점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32(6), 73-95.
- [Jeong, J. Y., & Park, N. I. (2021). Professor-student public relationships and the likelihood of the students leaving university.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32(6), 73-95.]
- 정한호 (2022). 대학 비대면 수업에서 지각된 관계성, 온라인 자기 조절학습, 인지된 학업 성취, 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2(1), 47-73.
- [Jeong, H. H. (202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perceived relatedness, online self-regulated learning, perceived learning gains, and satisfaction of non-face-to-face classes in university.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2(1), 47-73.]
- 진윤희 (2020).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성을 조절효과로-. **정책개발연구**, 20(1), 101-128.
- [Jin, Y. H. (2020).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apital on academic achievement in college student-Moderate effect of relationship-. *The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20(1), 101-128.]
- 황선주 (2019). 대학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경쟁력 제고 방안 도출 컨설팅을 위한 통계 기법 제안: 부산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19(2), 245-252.
- [Hwang, S. J. (2019). A proposal of statistical technique for consulting method

- of college competitiveness review due to reduced enrollment resources: Focusing on the universities in Busan area.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19(2), 245-252.]
- Arnett,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 469-80.
- Arnett,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 Atkinson, J. (1964). *An introduction to motivation*. Princeton, NJ: Van Nostrand.
- Baumeister, R., & Leary, M.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Braskamp, L. (2007). *Fostering religious and spiritual development of students during colleges*. San Francisco, CA: Jowwey-Bass.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 crisis*. New York: Norton.
- Fowler, J. (1981).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NY: Harper San Francisco.
- Fowler, J. (1987). *Faith development and pastoral ca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Habermas, R., & Issler, K. (1996). **화목을 위한 가르침**. 김성웅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 데. (원전 1992 출판)
- [Habermas, R., & Issler, K. (1996). *Teaching for reconciliation: Foundation and practice of Christian educational ministry*. (Kim, S. U. Trans.). Seoul: Book Publishing Timothy. (original work published 1992).]
- Kegan, R. (1982). *The evolving self: Problem and process in human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evinson, D.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Ballantine.
- Little, S. (1983). **기독교교육 교수방법론**.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전

1983 출판)

[Little, S. (1983). *To set one's heart: Belief and teaching in the church*. (Sa, M. J. Trans.). Atlanta: John Knox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3).]

Moore, E. (1998). **심장으로 하는 신학과 교육**. 장대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원전 1991년 출판)

[Moore, E. (1998). *Teaching from the heart: Theology and educational method*. (Jang, D. H. Trans.). Seoul: Korea Theological Research Institute. (original work published 1991).]

Osmer, R. (1995). **신앙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전 1989 출판)

[Osmer, R. (1995). *Teaching for faith: A guide for teachers of adult classes*. (Sa, M. J. Trans.). Seoul: Korea Presbyterian Church Publishing Department. (original work published 1989).]

Ryan, R., & Deci, E.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Vaillant, G. (2013). **행복의 비밀**. (최원석 역). 서울: 21세기북스. (원전 2012 출판).

[Vaillant, G. (2013). *Triumphs of experience: The Man of the Harvard Grant Study*. [Choi, W. S. Trans). Seoul: Book 21st Publishing Group. (original work published 2012).]

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 of Christian Youth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

Eunhye Park

Associate Professor. Sungkyu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summarize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in terms of developmental psychology, university education, faith, and spirituality in order to form and improve relationships, which are major developmental tasks of youth, and to suggest Christian youth education by the elements of education. Relationships are formed when you are connected to another person and community, feel interested in each other, feel a sense of bond and belonging, and maintain a stable and satisfactory relationship. This is not skill or technology, but is related to life attitude and value, and continuous learning and training are required. Various developmental tasks in youth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relationships. Relationships positively affect the lives of young people, such as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in the early stages of youth, adaptation to college life, personality, and career decision. Relationships are also very important in faith because human existence and faith are defined and formed through relationship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unity and others plays an important role in spiritual development for the meaning of life and inner growth. In the aspects of learner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it was suggested to understand learners with desire for relationships, the generation they live in,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people occurs. In terms of teachers, teachers have to try to change their roles such as facilitators, guides, managers, and mentors. For the educational purpose and content, it was suggested that relationships should be the ultimate purpose and the educational content for this was presented in three different types of relationships and each main contents to be dealt with. In terms of educational method, it was proposed to select a learner-centered group learning method that induces communic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of learners to cause interaction by considering other elements of education according to the content of the relationship in the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dimensions. In the aspects of educational results and evaluation, it was proposed to confirm that what was considered during the educational planning stage was effectively carried out in actual education, to evaluate various evaluation methods, various aspects, and to summarize the evaluation results for the specific application.

《 **Keywords** 》

relationship, young adult, developmental task,
Christian young adult education, faith

- 투고접수일 : 2022년 9월 6일
- 심사완료일 : 2022년 9월 28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9월 29일